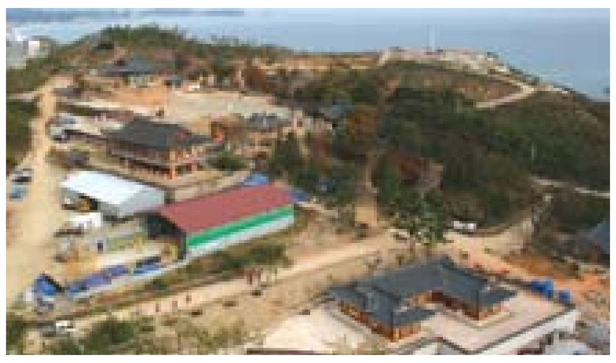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복원한 보물 479호 낙산사 동종과 새로 조성한 종루.

원통보전 땅속에 묻은 타임캡슐.

2005년 당시 화재로 폐허가 된 낙산사 전경.


전체공정 중 70%가 복원된 낙산사 전경.

천 년의 세월을 되살리다

원통보전 낙성식과 범종 타종식 앞둔 낙산사 복원 현장

2005년 4월, 낙산사에 뜻하지 않은 산불이 닥쳤다. 관음성지이자 천년고찰인 낙산사 원통보전은 검게 그을린 7층석탑만을 남겨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 역시 종루와 함께 녹아 없어졌다. 그나마 주지 정념 스님이 황급히 옮긴 건칠관세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만이 화를 면했다. 끝내 화마로부터 성보를 지켜내지 못한 스님들과 신도들은 거대한 불길 앞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잿더미가 된 도량을 보며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은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불이 나기 전의 상태가 아닌, 통일신라시대 의상 대사가 창건할 당시 모습으로 낙산사를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흘렀다. 낙산사가 원통보전과 동종 복원을 마치고 11월 16일 낙성식과 범종 타종식을 봉행한다. 낙성식을 1주일 여 앞둔 11월 7일, 낙산사 복원 현장을 미리 찾았다.

새롭게 되살아난 낙산사 원통보전. 홀로 남았던 7층 석탑이 반갑게 맞아주는 듯 하다. 작은 사진은 화재당시 석탑만 남은 모습.

일주문에 들어서니 마음이 바빠졌다. 원통보전을 빨리 보고 싶었다. 멀리 원통보전의 기와가 보이기 시작했다. 거세던 불길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세월 속으로 사라졌던 원통보전이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1000만 불자들의 간절한 원력의 결실이다.

현장은 아직 여기저기 중장비 차량이 서 있고 건축자재가 놓여 있어 어수선했다. 고개를 돌리니 포크레인 너머로 새로 지은 종루가 보이고 불타 없어졌던 동종이 새로 걸려 있었다.

낙성식 준비에 한창인 총무법인 스님은 "공사는 현재 70% 정도 완료됐다. 마무리 공사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원통보전을 비롯해 중요한 공사는 거의 끝난 셈이다. 복원공사는 2009년이 돼야 완전히 끝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물인 건칠관세음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던 원통보전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옛 절터를 바탕으로 불에 탄 것과는 다른, 조선 세조 당시의 건축 양식으로 복원됐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사각형 건물에 화강석 기단, 배흘림 기둥, 팔작 지붕 등을 갖췄다.

복원 과정에서 주지 정념 스님은 원통보전의 설계도 등이 들어 있는 타임캡슐을 땅 속에 묻어 눈길을 끌었다. 기둥은 양양군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의 적송을 썼다. 지역 문화재로 지정된 원통보전 담장과 주변도 공사를 시작한지 약 1년 만에 모두 말끔하게 제 모습을 찾았다.

동종(銅鐘)은 사진과 탁본 등을 이용해 원형대로 복원했으며 타종을 위한 범종이 따로 제작됐다. 종이 안치될 종루는 십자 모양의 팔작지붕과 누각으로 지어졌으며 소실됐던 홍예문, 요사채 등도 대부분 복원됐고 일부 전각만 남아있다. 낙산사는 2005년 대형 산불로 15채의 건물중 11채가 전소됐다.

비록 낙산사의 풍광을 빛냈던 주변 소나무 숲은 사라졌지만 새로 심은 3000여 그루의 소나무가 다시 낙산사를 지켜주고 있었다.

낙산사는 의상 대사가 창건한 이래 유달리 화재로 인한 아픔을 많이 겪었던 절이다. 같은 터에서 숱한 세월이 사라졌고 또 세워졌다. 새로 세워진 원통보전에서 천년의 세월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천 년 전에도 이곳은 낙산사였고 지금도 이곳은 낙산사다.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싶었던 의상 대사의 간절한 원력을 품은 관음도량 낙산사. 이제 모두의 원력으로 다시 천년세월을 품기 시작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최근 낙산사 홍련암과 의상대 일원에 대해 명승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낙산사와 양양군은 경내 전체를 명승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낙산사 측은 "낙산사를 배제하고 의상대와 홍련암이 있는 해안 절경만을 분리 지정할 경우 관동 8경의 하나로 전해지는 낙산사 명칭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양양 낙산사=박재완 기자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

"낙산사를 따뜻한 사찰, 정이 넘치는 사찰, 누구나 편안히 와서 기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원통보전 낙성식 준비에 한창인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 사진)은 사찰 운영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스님은 화재 이후 사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동안 30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1년 365일 방문객들에게 국수도 무료로 대접한다. 뿐만 아니라 경내에 무료 커피 자판기도 운영하고 있다.

불자들의 복원 발원이 보태져 낙산사가 새롭게 태어난 만큼 불자들에게 회향하고 싶다는 정념 스님은 공사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재원 마련이었다고 회고했다.

"복원 공사에 약 80여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됐는데 처음에는 국가가 모두 해줄 것처럼 매스컴에 보도돼 후원금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을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불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한 번도 낙산사 복원을 위해 기금 마련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하는 불자들의 기도비와 보시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공사를 강행했지요."

정념 스님은 이번 낙산사 복원 의미에 대해서 "낙산사 복원은 단순히 불타 없어진 것들을 다시 만들어 세우는 일이 아니라 창건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함으로써 그야말로 천년고찰의 옛 모습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 상량식 / 불사 / 소장용 /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통증완화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냉하신분 ◆손,발이차신분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氣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 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온열뜸 의료기인증
전자파 환경인증

LIG배상보험 가입
실용실안출원 원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배,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73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